즉시 배포용: 10/5/2015 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테러리스트 공격 희생자들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하다

본 법안으로 생명보험 계승적 재산권 처분과 관련한 법정 수수료를 면제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테러리스트 공격 희생자들의 가족에게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법안으로 2001년 9월 11일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을 위한 수수료 면제를 허용하는 현재의 법안에서 확대하여 보험회사는 미국에서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게 연금보험 구매와 관련된 수수료를 면제해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뉴욕주민들은 비극적인 일이 발생할 때마다 함께 이겨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법안으로 보험회사들은 극악무도한 테러 행위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보다 잘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에 서명하게 되어 기쁩니다."

보험회사들은 의무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가족들에게 보다 큰 자금난 완화 업무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법안(S.2152/A.2026)으로 과거에 발생했던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게 의무 면제가 적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im Kennedy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나라에 끔찍한 테러 공격이 발생하면, 너무나 많은 미국분들이 도와줄 방법을 찾아나섭니다. 오늘 우리는 고통을 겪으신 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신속한 도움을 주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험 에이전트가 테러리스트 공격에 따른 계승적 재산권 처분 문제 해결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관련 에이전트에게 이들 가족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줌으로써 이들 피해자들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 자신과 모든 피해자 가족 및 에이전트를 대신해, 본 법안의 중요성과 이것이 미치는 폭넓은 영향력을 인정해주시고 법안에 서명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를 취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Sean Ryan 주의회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극적인 일이 발생할 때마다, 미국인들은 항상 동료 시민들을 도울 방법을 찾고 그들이 일어설 수 있게 도와줍니다. 보험 에이전트들은 종종 테러리스트 공격을 받은 희생자 가족들을 위해 잘 짜여진 계승적 재산권 처분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주법은 실제로 보험 에이전트가 이러한 지원 행위를 법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에이전트는 테러리스트의 공격의 공포를 이겨내야 하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보내고 싶다는 이유로 라이선스를 빼앗기는 위험에 처해지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법안은 꼭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이 법안에 서명해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 드립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